

현대차그룹, 군 장병 응원 '온택트 소통 콘서트'

'군인의 품격' 온라인 콘서트 진행
이상화 선수·이국종 교수 등 강연

현대자동차그룹이 온라인을 통해 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대차그룹은 군 장병 대상 사회공헌활동 '2020 군인의 품격 온택트 소통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다.

현대차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콘서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과 국방부 유튜브에 23일과 30일, 12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콘서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콘텐츠 영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라는 주제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였던 이상화 선수, 다류



'2020 군인의 품격' 온(ON)택트 소통 콘서트에서 MC 안현모씨와 이상화 선수가 "승리하는 마인드에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토크쇼 후 포즈를 취하는 모습. /현대자동차그룹

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만든 김진만 PD, 국내 외상외과 분야의 개척자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강연하는 내용이다.

또 3명의 연사별로 각각 다른 부대를 매칭해 해당 군장병들의 '고민상담 코너', 편

지 전달 이벤트인 '사연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의 사전 참여 프로그램으로 장병들이 온라인으로 연사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벤츠, 장애인·독거노인에 '겨울나기 키트'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 임직원들이 모여 이웃들과 온기를 나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벤츠 코리아 계열사인 파이낸셜 서비스와 모빌리티 임직원들이 모였다. 힐케 안센 부의장을 비롯해 30여명

임직원들이 서울스퀘어빌딩 본사 회의실에서 키트 150개를 제작했다.

키트는 장갑과 목도리, 메시지 카드로 구성했다. 직접 벤츠 로고를 새겼으며, 메시지 카드도 손으로 작성했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금천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독거노인에 전달될 예정이다.

힐케 안센 부의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가 추운 겨울



벤츠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키트를 만들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내내 사회 취약계층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다가온 '코로나 수능' 다 함께 잠시 멈출 때



기지 수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대한민국 고3 결전의 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됐다. 수능 도입 이래 처음으로 수험생들은 좌석마다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마스크를 쓴 채 시험에 임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닷새 연속 300명 선을 웃돌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수도권 권의 거리 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한 지 닷새 만이다. 2월 말 1차 대유행과 8월 2차 대유행에 이어 '3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면서 겨울철 대유행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3차 대유행에서는 1차와 2차와는 다르게 젊은층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초 확진자가 6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 당국이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설정했지만,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능 차질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크다.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은 일상 생활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차 유행과 달리 집단감염이 5명 내외 소규모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개입 조치만으론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2주간 62개 집단감염이 발견됐다. 3차 유행의 한복판에 선 이상 수험생뿐 아니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온 국민이 잠시 멈추는 건 어렵다. 사실상 수험생의 12년간 학교생활은 수능을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교육과 방역 당국의 빈틈없는 수능과 방역을 준비해야 하고, 수험생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정부기관의 호소를 새겨들 때다. /hji@

오늘의 운세 11월 24일 (음 10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아는 것이 적어도 유식한 사람과 사귀어서 이해를. **48년생** 남들이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인가. **60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신중. **72년생** 오후에 큰일이 계약. **84년생** 일에 파묻혀 정신이 없다.
- 37년생** 두루 베풀면 오후에 일이 순조롭게 해결. **49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할 터. **61년생** 속세를 떠나면 할 일은 더욱더 많아 더 버지려해야 할 것. **73년생** 명쾌하고 산뜻한 하루. **85년생**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도리.
- 38년생** 자기주장만 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5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평온하다. **62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있으나 마음을 잡자. **74년생** 붉은 색이 행운을. **86년생** 서류를 이치에 맞게 잘 작성하니 성과도 두 배다.
- 39년생** 누구나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허망하게 가지 않도록. **51년생** 배우자의 의견중중. **63년생** 치과 진료를 늦추지 말고 날을 잡도록. **75년생** 새로운 유행에 관심을 둔다. **87년생** 상사의 의견에 토를 달기보다는 소통을 해라.
- 40년생**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 한탄. **52년생** 남쪽에서 귀인이오니 거래가 성사. **64년생** 식탐을 줄여보면 병원 다니지 않아도 될 듯. **76년생** 상금을 타서 부모님께 돌려간다. **88년생** 머리가 아프나 오후에 일이 해결되어 감사할.
- 41년생** 일은 말보다는 문서로 해야 신속 정확. **53년생** 봉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65년생** 구설에 주의하고 송사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 **77년생** 업무량이 많다면 쉬은 일부터 해 나가보라. **89년생** 태교교육은 언행부터 신중하.
- 42년생** 외출하여 직접 부딪쳐 추진하면 소득이. **54년생**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66년생** 낙락장승(落落長松)이 옛말이던가. **78년생** 세상이 각박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90년생** 카페에서 한 잔의 여유로운 커피를 마셔보자.
- 43년생**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55년생** 가을메미의 시끄러운 소리처럼 주변 소란. **67년생** 조상님제사에 참석하도록. **79년생** 봄에 꽃필 무렵이면 비가 많이 온다. **91년생** 계획 없는 이직보다는 인내를해야.
- 44년생** 재산 나눠주고 동거식사거숙 하지 않도록. **56년생** 모여서 소란스럽다. **68년생** 신념을 가지면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80년생** 잠재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2년생** 금전 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주의.
- 45년생** 자고 나도 피곤하니 좀 쉬도록 할 것. **57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득이 나도록. **69년생**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 일이 늦어진다. **8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93년생** 부모의 이혼을 막도록.
- 46년생** 의지할 데 없는 노년 신세. **58년생** 고생은 모르지만, 거짓은 하지 않으니 복이 온다. **70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월말 결산에 이득이 발생. **82년생** 보유한 산에다 길이나니 조상님 은덕. **94년생** 공부가 싫다면 기술을 연마해야.
- 47년생** 바쁜 가운데 한가한 틈을 내 자녀 돌보기. **59년생**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죽은 말의 빠다귀를 산다는 표현. **71년생** 매화를 아내로 삼고 풍요롭다. **83년생** 우선 시작을 하고 결과를 지켜보라. **95년생** 일이 순조롭다.

김상희의四季

체질과 보양식



올여름은 긴 장마 때문인지 무더위가 예년보다 덜했다. 여름 무더위가 고생이기는 하지만 사실 계절 가리지 않고 날마다 피로에 시달린다. 해야 할 일은 쏟아지고 스트레스는 쉬지 않고 몰아닥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기를 돋워줄 보양식을 찾는다. 보양식이라고 하면 흔히들 더운 여름에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보양식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시시철 필요하면 언제나 먹는 음식이다.

그러나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모두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최고의 효과는 자기 체질과 맞아떨어질 때 나타난다. 사상의학으로 구분해보면 체질은 네 가지로 나뉘고 그 체질에 따라 음식 궁합이 달라진다.

태양인은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태양인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소화가 쉬운 음식들이 좋다. 잘 어울리는 보양식은 낙지나 해삼을 꼽을 수 있다. 태음인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체질이다. 상체가 약하고 하체가 잘 발달했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 좋는데 장어나 추어탕 같은 음식이 해당한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게 특징이다. 찬 성질의 돼지고기나 오리고기가 잘 어울리고 여름에 즐겨 먹는 냉면이나 메밀국수는 몸의 열을 식혀준다. 소음인은 비위가 좋지 않은 체질이다. 몸도 차가운 편이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 보양식으로 알맞다. 삼계탕이 잘 어울리는데 닭과 함께 끓이는 인삼이나 대추가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

여름에 복날이 되면 보양식 집 앞에 길게 선 줄을 매년 본다. 보양식이 무더운 여름에 몸을 회복시켜 주지만 여름 뿐 아니라 몸이 힘들고 기력이 부족할 때 언제든지 보양식을 먹는 게 좋은 선택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신박한 학습법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별판 브라운 저 | epress | 15,000원

1	2		6	4	9		A	5		
5	6		1	2	9	7		B		
	B	C	9	5	A	3		2	4	
3	4		1	5	C			A		
C	8	7	3	9	2	4	5	B	1	6
	9	5		6	B		3	C	8	
A	C	9		4	6		2	7		
4	7	5	1	9	2	A	8	6	B	3
	3		B	5	7			4	9	
9	4		C	1	6	3	5	8		
B	7	8	2	4		6		1		
6	3		7	9	5	4	2			

새로운 과난이도의 워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V	Z	P	8	9	6	8	L	Q	E	9
L	6	9	Q	V	P	E	Z	8	L	9
L	8	9	E	9	L	8	Q	V	P	Z
6	P	L	V	L	9	Q	8	Z	8	E
E	8	Q	9	8	V	Z	6	L	9	L
9	L	8	L	L	E	9	V	8	6	Q
8	Q	E	P	8	9	L	V	9	L	6
9	L	8	V	P	Z	6	E	L	V	8
Z	V	6	L	Q	8	9	L	9	8	P
P	9	Z	L	E	L	V	9	6	Q	8
8	E	L	6	Z	Q	L	8	P	9	V
Q	V	8	6	8	P	9	E	Z	L	V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80호